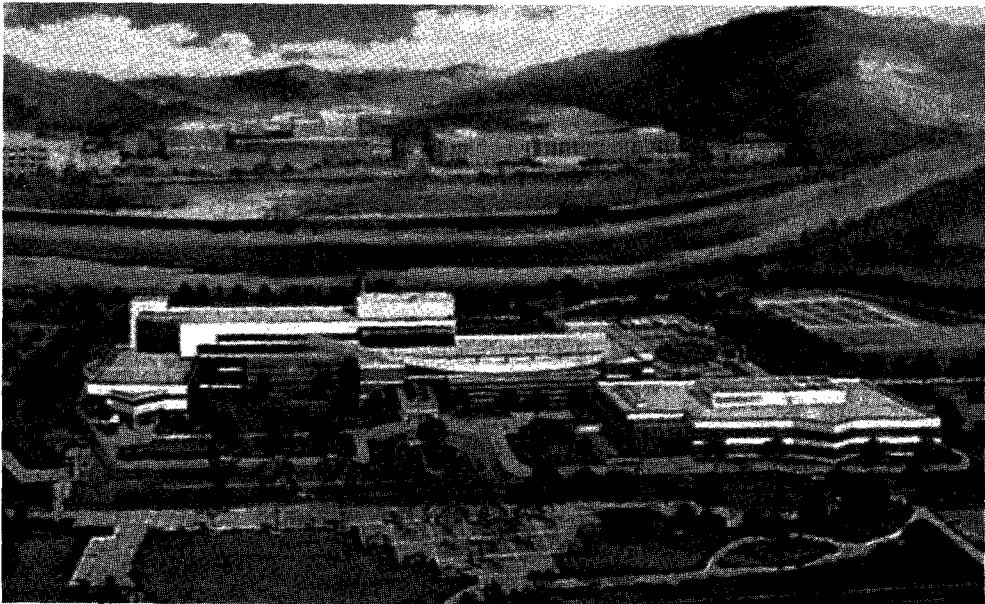


새해 새설계  
'9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도약, 준비하는 한 해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신청사 조감도

올해는 우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 설립된지 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지난 해가 고도의 정보화 사회와 국제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의 해'였다면, 올해는 정부가 「원자력안전정책성명」을 통해 천명한 바 있는 독립성, 공개성, 명확성, 효율성, 신뢰성 등 규제 5원칙을 충실히 실천하며, 선진화 된 원자력안전규제기술력으로 세계속으로 오비와 도약의 나래를 힘껏 펼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 전문화된 원자력안전 규제능력

지난 해 국내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하여 최초로 건설된 영광원자력 3호기, 다목적연구용원자로, 포항공대의 대용량 방사광가속기 등 세 가지의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에 대한 인허가심사를 훌륭히 수행하면서 확대 심화시킨 원자력안전규제 능력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안면도사태 이후 표류를 거듭하다 최종 입지를 선정 발표한 원자력폐기물 관리시설은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

는 만큼, 그동안 개발한 안전기술 및 안전규제기술을 부지의 적합성 심사, 환경영향평가 심사, 설계 및 건설의 인허가 심사 등에 철저히 적용하여 국제적인 안전수준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들을 안심시킬 것이다.

영광원자력 4호기 인허가 심사는 영광원자력 3호기 인허가 심사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한 단계 진보된 안전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현재 영광원자력 5, 6호기의 건설이 계획중인 것을 감안한 동일부지내 다수기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화 문제 및 영광지역 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는 온배수에 의한 해양생태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1,000MWe급 한국형 경수로가 북한에 지원될 경우를 대비한 「경수로지원전담반」을 특별구성하여, 안전성확보 전략 및 방안 수립, 안전성확보 방안의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대북 경수로지원 관련자료와 정보 수집 및 분석 등 규제업무에 필요한 다각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국민의 편에서 있는 원자력안전규제 수행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여유도를 충분히 확보한 안전규제기준을 적용하여, 무엇보다도 규제 요원의 전문성과 건전한 상식에 근거한 독립적인 원자력 안전규제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규제업무수행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여 국민이 납득 가능한 규제를 수행할 것이다.

나아가 외부 전문기관에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를 의뢰하여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해 원자력안전규제를 수행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원자력 안전의 파수꾼이 될 것이다.

지난 해에는 원자력관련 부품 생산업체를 위한 「원자력안전규제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원자력산업체에게는 예측 가능한 규제를, 신규참여 희망업체에게는 사전

준비 가능한 규제를 실현하여 원자력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한 바 있다.

금년에도 이를 확대 보완한 각종 설명회 뿐만 아니라, 규제정책결정에 있어 공익차원에서 국민과 사업자를 동등하게 참여시키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성의 중요도에 따라 한정된 규제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위험도기준규제의 적용을 위한 발전소별 확률론적 안전성분석의 도입을 추진하며, 발전소 현안 우선순위 등 특정문제를 해결하는데 부분적으로 위험도기준규제를 적용할 것이다.

### 원자력안전규제의 세계화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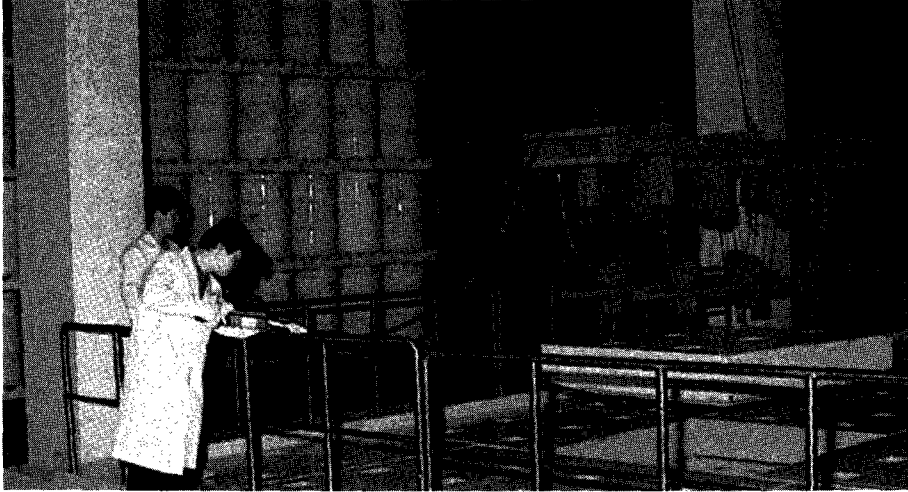
IAEA와 원자력선진국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국제수준의 규제 능력은 이미 루마니아, 아르메니아, 중국 등에서 원자력안전협력관계 체결을 구체적으로 요청받고 있다.

또한 보다 향상된 원자력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기준 및 규제기술 개발, 신형로 평가기술 등 규제분야 R & D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금년에 수립,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공동연구 및 공동조사 등 중장기 교육연구 프로그램과 현장에서의 규제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해외훈련과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용하여, 전문성과 국제감각을 겸비한 규제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협약」이 작년 9월 제38차 IAEA 총회에서 체결되어 세계 각국은 원자력시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지게 되었으며, 원자력안전기술 수준 및 안전문화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우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해 IAEA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4회 원자력안전성심포지엄에서 제기된 가칭 「동북아시아의 원자력안전협력센터」의 건립을 구체



원전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화 시키기 위해, 금년에는 동북아지역국의 원자력안전 관련 전문가들과 세미나 및 심포지엄을 개최, 동 센터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새롭게 열리는 신청사 시대

대지 22,330여평, 건평 6,100여평의 초현대식 인텔리젠트빌딩 개념의 신청사에 금년 9월 예정대로 입주하면, 명실상부한 독립규제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는 한편 고속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국내외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기술, 정보, 행정 등 전 분야에 걸친 일대 혁신을 이룩할 것이다.

신청사에는 훈련센터를 건립하여 심사, 검사, 방사선 환경과 관련된 실무에 필요한 신청과 시험, 그리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연중 개설할 예정으로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면허시험관리를, 필기 위주에서 일정기간의 위탁교육과 훈련을 통한 실기위주로 전

환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한전을 비롯한 원자력사용자측의 안전시설운영자의 자질향상 및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 옹비하는 한 해

지난 해에 발생하였던 성수대교 붕괴와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기지의 폭발 등의 대형 산업안전사고들이 안전수칙의 불이행과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人災)였다는 점을 교훈 삼아, 국제적인 안전기준 및 규제기술의 개발로 국내 원자력 안전성 확보는 물론 국제원자력안전성 증진에도 기여하기 위해, 우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00여 직원들은 혼신의 힘을 모아 명실공히 1995년도를 '옹비하는 한 해'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한다.